전주매일 CMYK

▶▶ 매일 INDEX

8면 노을대교 성공 전북 서남권 발전 이끈다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1년 10월 5일 화요일(음 8월 29일) 제287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국가예산 최다 확보 가속 페달

도 지휘부 릴레이 국회 방문
전북 지역·연고 의원들에
도정 현안 예산 반영 요청

지난 1일 조봉업 행정부지사(사진 오른쪽)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선봉장 역할을 요청하고 있다.

전북도가 지역 정치권에 적극적인 협조와 역할을 요청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며, 국가예산 최다 확보를 위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송하진 호의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지휘부 릴레이 국회 방문이 지난달 29일 신원식 정무부지사에 이어 지난 1일 조봉업 행정부지사가 바통을 이어받아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국가예산 최다 확보와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건의했다.

조 부지사는 먼저, 보건복지위 간사인 이용호 의원을 만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사업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공공의대 설립은 지난 2018년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남원 설치 결정 이후, 관련 제정 법안의 상임위 계류, 의사협회 반대 등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로, 공공의대법 통과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예산확보를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어,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선봉장 역할을 요청함과 동시에, 전북 의원이 반드시 예결 소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전북 국회의원 중 예결위원은 신영대, 이원택 의원 2명으로, 예결소위 위원은 예산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에 전북으로서는 예결소위에 지역의원이 꼭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에 윤준병 의원이 예결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전북 몫 찾기에 큰 역할을 함에 따라, 내년도 최다 확보를 위해서라도 예결소위 의원의 필요성은 커졌다.

특히, 행안위 간사인 한병도 의원에게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의 파이를 키워줄 것도 건의했다.

올해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골목상권이 큰 위기에 처한 가운데, 그나마 소비심리 활성화와 지역경제 숨통을 틔운 게 지역사랑상품권이었다.

조 부지사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상품권 발행을 위한 정부 지원 예산이 올해 대비 77.2%나 감소돼(2021년 1조 522억원 → 2022년 2,403억원) 지역경제에 미치는 충격도 매우 클 것으로 우려된다며, 향후 상임위에서 반드시 증액시킬 수 있도록 건의했다.

아울러, 기재위 소속 의원들에게는 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에서 심사중인 전북도 예타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협조 요청했다.

그린수소 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수소산업 전주기 육성 토대 마련을 위한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IT 기술이 융합된 최첨단 농기계 테스트베드 구축으로 첨단농업을 선도할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등 전북 미래 먹거리의 예타 통과를 요청했다.

또한, 새만금 내부 접근성 개선 도로망 구축 사업인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과 새만금 트라이포트 완성을 위한 '새만금항인입철도 건설' 사업의 예타 통과에도 관심과 지원을 가져 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도는 국정감사와 전북도의회 도정질문 등 빡빡한 일정 속에서도 기재부 예산실 방문 활동과 지속적인 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국가예산 확보 고삐를 바짝 당길 계획이다.

먼저 행정·정무부지사의 기재부 방문 활동에 이어서, 송하진 도지사가 10월 중순에 '국가예산 확보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정치권과는 릴레이로 예산정책협의회를 갖는 등 고삐를 바짝 당길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재부, 중앙부처, 국회 등 향우 및 우호 인사와 인적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정보를 공유하고, 국민의힘 동행의원과도 교류를 확대하는 등 국가예산 최다 확보를 위한 전방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도내 전역 사적모임 4인까지… 예방접종완료자 예외 적용
3단계 전주·군산 등, 2단계 정읍·남원 등 현 단계 그대로

정부는 지난 3일 종료된 현 사회적 거리두기를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연장하고, 비수도권 '사적모임 4인까지 허용' 단일화 조치도 동일하게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추석 연휴 인구이동 여파 본격화, 10월 단풍철과 개천절·한글날 연휴 등 위험 요인이 많아 앞으로 감염규모가 커질 우려가 있어 현재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11월부터 시작 예정인 단계적 일상회복 체계 전환 준비, 사회적 논의 활성화를 위해 10월 유행양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변화되는 방역수칙으로는 결혼식, 돌잔치에서 적용이 어려운 수칙을 완화하되, 지나친 방역완화 신호가 되지 않도록 접종완료자 중심으로 완화한다.

이에, 전북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4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거리두기 3단계 지역인 전주·군산·익산·완주혁신도시(갈산리)와 2단계 지역인 정읍·남원·김제·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완주혁신도시(갈산리) 제외지역은 현 단계 그대로 2주간 연장한다.

도내 전 지역에서 사적모임은 접종미완료자의 경우 4명까지로 제한하고, 예방접종완료자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8인까지로(1차접종자 또는 미접종자 4명 + 접종완료자 4명까지 가능) 제한한다.

그 밖에 행사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은 정부의 단계별 강화된 방역수칙을 따른다고 밝혔다.

송하진 지사는 "이번 주말 한글날 연휴, 가을 행락철을 앞두고 있어 이동량 증가로 인한 감염 확산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환자수를 조절하려면 방역동참은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에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적극적인 예방접종 동참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깝게'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해주세요

전주 한지한복, 영국을 사로잡다

전주시-주영한국문화원 협력
한국의 날 기념 한복패션쇼

코번트리대학 한국센터는 지난 1일(한국시간 밤 11시) 코번트리대학교 스퀘어 원(SQUARE ONE)에서 영국 코번트리 한국의 날을 기념해 전주한지한복패션쇼를 열었다.

영국의 문화도시 코번트리(Coventry)에 아름다운 전주 한지한복이 소개됐다.

코번트리대학 한국센터는 지난 1일(한국시간 밤 11시) 코번트리대학교 스퀘어 원(SQUARE ONE)에서 영국 코번트리 한국의 날을 기념해 전주한지한복패션쇼를 열었다. 패션쇼 행사는 전주시와 주영한국문화원의 협력으로 진행됐다.

'지속가능한 도시, 지속가능한 패션'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전주한지한복패션쇼와 더불어 서예를 활용한 공연과 사물놀이, 전통국악 공연 등 한국 문화의 정수를 알리는 다채로운 행사로 채워졌다.

특히 전주패션협회(회장 최경은)의 협조로 진행된 패션쇼 무대에는 대례복부터 조선시대 왕이 집무 시 즐겨 입던 곤룡포, 도포, 장옷 등 다양한 종류와 색감의 한지한복이 선을 보였다.

이날 코번트리 시민들은 한복패션을 관람하고 한지를 체험하면서 한복을 입은 전주의 수달과 영국을 상징하는 테디베어 등의 인형을 관람하는 등 한국 문화에 대해 알아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서배원 전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브리스톨 등의 도시와 영국항공 등의 기업과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맺어온 전주시는 영국 2021 문화도시로 선정된 코번트리에서 전주 한지한복을 홍보하는 기회를 얻게 됐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에서 외래관광객의 직접유치는 어려운 상황이나, 영국뿐만 아니라 각 국의 대사관 및 문화원 등과 협력해 한발 앞선 글로벌 마케팅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